가야불교 복원, 동국대·김해시 앞장선다

8월 30일 상호협력 협약… 官·學 연계 첫 사례

가야사와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동국대와 김해시가 손을 맞잡았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김해시(허성곤)는 8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야사와 가야불교문화에 대한 공동연구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야불교문화와 콘텐츠 연구 개발 공동협력 △왕후사지 발굴 복원 공동협력 △가야·인도 불교 연관성 및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야사와 가야불교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국정과제로 선택된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게 됐다.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묻혀서 가야는 제대로 발굴도 없었고 조명도 받지 못했다"며 "동국대와 김해시가 공동연구를 통해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의 고대사의 면모를 조명하고 대중에 알려나가겠다. 또한 여러 콘텐츠 개발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가야사와 가야의 정신문화였을 가야불교를 조명하는 데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은 것은 첫 사례"라며 "서울과 지방의 협력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가야사와 가야불교 연구를 위해 김해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야 불교사 연구 협력
왕후사지 발굴 복원 등
공동 연구사업 추진 나서
9월 중 실무위 구성 예정
동국대 세불연 세미나도

이와 함께 협약식 이후에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주관한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영섭 소장(불교학과 교수)은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시원'에서 김수로왕이 붓다의 성도지인 '부다가야'를 의식해 불교식 국명(國名)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야의 이명)'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와 김해시는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8월 30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수로왕은 가야의 새로운 왕성터를 '16나한이 살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앞선 선진문물인 불교 이념에 의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며 "이 때문에 수로왕이 대륙에서 서해를 건너온 서기 42년은 가야국의 건국 원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에 의해 법제적으로 공인된 가야불교의 시원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는 '가야사 연구와 가야사의 지위'를 통해 근대부터 해방이후까지 가야사 연구 변천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다. 아울러 '사국시대론' 등 한국고대사에서의 가야사의 위상을 조명했다.

이밖에도 이영식 인제대 고고학과 교수가 '가야사와 고고학 자료의 발굴 현황'을, 최경아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가 '남아시아 불교와 가야불교의 접점'을, 정진원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 '가야불교 인물의 발굴과 활동 분석'을, 김복순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의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김해시는 오는 10월 28일 회현동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7 허왕후 신행길 축제'에서 식전행사로 가야불교국제학술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⑧ 아름다운 마지막이란

뒷모습이 참모습이다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감동적으로 각인된 법정 스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실제로 나는 불교신자가 아닌 몇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은 놀랍게도 같았다. TV로 방영된 스님의 장례식 모습이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꽃으로 장식한 운구차를 이용했지만 스님은 당신의 유언에 따라 그러지 않았다. 누운 스님을 가사 한 장으로 덮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스님의 그 모습은 송광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때 나는 뒷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송광사 다비장 산길을 오르는데 서옹 스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백양사로 스님을 뵈러 갔을 때 "참사람은 삶도 죽음도 없어. 죽어도 산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라고 말씀했다. 중국의 조주 스님도 어느 장례행렬을 보고 "한 사람이 살아서 가는데 만 사람이 죽어서 따라간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어찌 나뿐일까. 스님의 마지막 길을 보려고 온 사람들도 모두 그러지 않았을까.

선가에는 화중생련(火中生蓮) 즉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다. 불같이 치열하게 수행 정진해야만 깨달음의 꽃이 핀다는 말이리라. 장작불길 속에 든 스님을 바라보며 나는 화중생련이란 선어(禪語)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곳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스님의 구름 같은 삶도 온전하게 연소하는 장작불길 같았던 것이다. 스님은 늘 내게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스님이 먼저 실천하고 떠나신 것이다.

그날 나는 다비장에서 불일암으로 내려와 스님을 다시 만났다. 스님의 흔적과 이야기했다. 마침 스님께서 제주도에서 가져온 수선화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혼 같았다. 졸참나무로 만든 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일명 '빠삐용 의자'였다. 내가 사다드린 수제품 풍경도 아래채 처마에 달려 있었다. 스님은 큰 바람이 불 때만 소리를 낸다 하여 '태풍의 대변인'이라고 임명한 풍경이었다. 불일암 토방에 놓인 흰 고무신도 스님의 것이 분명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내 산방으로 돌아와 사립문을 걸었다. 그런 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서 49재를 지내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글에만 집중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약속도 뒤로 미루었다. 누에고치처럼 자신을 가두었다. 49일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소설은 며칠이 더 지나서야 완성됐다. 그 작품이 바로 소설 〈무소유〉다. 나는 소설의 면지에 '진리의 문을 가리켜주신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께 향 하나 사루며 부끄러운 이 책을 올립니다'고 밝혔다. 스님은 내게 출가 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이 소설에서 가장 돋보이는 때 묻지 않은 영혼이 아닐까 싶다.

"종교인과세, 종교 특성 반영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계종 예방… 의견수렴

종교인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종교계를 예방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종교인과세에 각 종교 특성을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모두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고, 불교계 내에서도 종단마다 특성이 다르다. 종교와 종단 형편에 맞춰 방향을 제시한다면 종교인과세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하겠지만 잘 조정해 체계화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종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종교계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예방 직후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불교계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시종일관 지지 입장을 보여주셨다. 종교별로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할 순 없으나 징세 행정이나 장부기록 등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익숙지 않은 내용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 긴 호흡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에는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실장 정문 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박성진 후보자, 뉴라이트 사관 비슷"

조계종 종평위, 지명 철회 촉구 논평 발표

불교계가 창조과학회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4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 세간에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 설립된 기독교 창조과학 확산 단체로, 성서의 창조론을 과학적 사실로 보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신앙운동을 펼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8월 30일 논평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종평위는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지명 이유처럼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해 과학자로서 자질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평위는 이러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인 종교의 자유가 공직자의 지명 및 임명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종교가 정책이나 활동에 표출되고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 비판
종교사상 직무에 표출 우려

이어 종평위는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을 했다. 또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등 친일·친미·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사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조계종 수행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계종의 수행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간화선연구소(소장 미산)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5시 서울 안국선원 큰법당에서 '한국간화선연구소 종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종책 토론회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며, 한국간화선연구소장 미산 스님의 '인공지능 시대와 수행 종책에 대해'와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기 전법의 과제'가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